주식전략 이은택 et.lee@kbfg.com
연구원 이다은 de-lee@kbfg.com

2025-05-09

더 많은 리포트 보기

트럼프의 “당장 주식을 사라”. 이번에도 긍정적 시그널일까?

4월 9일 ‘Great time to buy’. 그리고 5월 8일 ‘Go out and buy stocks now’

어제 트럼프는 영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당장 주식을 사라 (Go out and buy stocks now)”라고 언급했다. 4월 9일에도 비슷한 발언 (Great time to buy, DJT)을 하고 4시간 뒤, 90일 관세유예를 발표하여 증시가 폭등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런 시그널일까?

트럼프가 ‘과거 협상 패턴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좋은 뉴스가 더 남았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0일선을 상향 돌파한 코스피

2025년 4월 9일, ‘90일 관세 유예 발표 4시간 전’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아직 좋은 뉴스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는 몇 가지 근거들

1) **트럼프는 시장이 낙관하게 만든 뒤, 다시 펀치를 날린다.** 무방비 상태에 펀치를 때려야 ‘다운’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아직은 시장 낙관론이 부족해보인다. 트럼프가 다시 관세 충격을 주면,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라고 말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1기 때는 ‘90일 유예’ 이후 약 4~5개월이나 긍정적 뉴스를 계속 흘렸다.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5월, 트럼프는 다시 관세를 높였다.

2) 90일 유예 연장/추가 합의국 등장: 1기 때는 ’90일 유예’를 ‘무기한’으로 확장한 바 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저께 빌 애크먼도 ‘180일 유예’를 전망했다. 그는 ’90일 유예’가 있을 것임을 맞췄던 투자자이며, 이그전도 같은 의견이다.

3) 중국 협상: 주말 중국과 협상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조심스럽게 낙관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① 미국은 지금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상대하기 버겁다. 따라서 올해는 세계와 전쟁하는 시기이고, 내년이 중국을 때리는 시기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선 가능한 중국과의 싸움은 ‘임시 봉합’을 하려 할 거라 생각한다. 중국 역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145% 관세의 타격이 중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낙관론이 팽배할 때 다시 결렬

자료: LSEG, KB증권

1. 트럼프는 4월 9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주식을 사라’고 선언했다
2. 향후 좋은 뉴스는 좀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자료에 적었다
3. 1기 때의 경우, 트럼프는 시장에 낙관론이 만연해졌을 때, 다시 협상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 시점은 증시가 “낙폭을 모두 회복”한 때였다

투자자 고지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KB증권